19세기, 20세기 초 漢語 학습서의 구성과 華音에 대하여

이 준 환 *

1. 들어가며
2. 학습서의 형식 및 내용 구성
  1)『你呢貴姓』
  2)『華音撮要』
  3)『華音啓蒙』과『華音啓蒙諺解』
  4)『華語類抄』
  5)『兒學編』
3. 한어 어음의 표기와 학습 목표로 설정한 화음
  1) 國俗撰字之法에 의한 華音 表記
  2) 학습 목표로 설정된 華音
4.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19세기, 20세기 초에 조선에서 유통된 漢語 學習書의 구성과 언어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기 조선에서의 한어 학습 및 교육의 모습과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시기에 비해 내용과 방법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된 한어 학습과 교육의 양상에 주목하고 각 학습서에 이루어진 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시기의 학습서에 반영되어 있는 華音의 모습은 어떤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어 연구 자료로서의 한어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학습서의 가치도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과 중국의 정치·외교, 경제, 문화적인 관계에서 볼 때, 한어를 이해하고 익히는 것은 조선에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일찍이 太祖 2년(1393) 9월에 司譯院을 설치하여 譯官을 교육하고 양성하였다.[1]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中宗 때에는 고려 때부터 한어 학습에 이용하여 왔던 회화 학습서인 『老乞大』, 『朴通事』를 崔世珍이 諺解한 『飜譯老乞大』(1510년대), 『飜譯朴通事』(1510년대)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는 이후에도 『老乞大諺解』(1670), 『平壤版 老乞大諺解』(1763), 『老乞大新釋諺解』(1763), 李洙 등에 의해 편찬된 『重刊老乞大諺解』(1795)와 『朴通事諺解』(1677), 金昌祚에 의해 편찬된 『朴通事新釋諺解』(1765) 등의 간행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 보완되어 한어 학습과 교육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鄭瀁에 의해서 유교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俗語나 卑語 등의 구어적 요소를 모아 편찬한 『語錄解』(1657)가 간행되었고, 愼以行 등이 편찬한 『譯語類解』(1690)와 이를 보완하여 金弘喆이 편찬한 『譯語類解補』(1775)와 같은 역학서 類解類를 간행하여 활용함으로써 한어 어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조선 후기 및 개화기에도 계속 이어져서 편자 미상의 『你呢貴姓』(1864?, 고종 때)과 같은 회화서, 무역 한어 교재로 徐順昌의 편찬으로 추정되는 『華音撮要』(1877년경), 李應憲이 편찬한 『華音啓蒙』(1883)과 이를 언해한, 역자 미상의 『華音啓蒙諺解』(1883?) 등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편자 미상의 『華語類抄』(1883년경)와 같은 유해류가 간행되어 사용되었으며, 池錫永에 의해 편찬된 『兒學編』(1908)과 같은 한자를 활용한 字書類의 학습서가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의 한어 학습과 교육은 국가적 관심과 민간의 수요를 바탕

1) 이뿐만이 아니라 太宗 때에는 역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漢語에 관한 학습 이외에도 經史에 능통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義理를 교육하기 위하여 文官 訓導를 司譯院에 두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詔勅과 事大交隣을 위한 文書를 담당하고 보관하던 文書應奉司를 承文院으로 개편하여[태종 11년(1411) 6월] 외교에 지대한 공을 들였다. 이와 같은 司譯院과 承文院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역학 정책에 관해서는 姜信沆(196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국가적 관심에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조선 후기로 올수록 민간의 수요에 기반하여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진 면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이처럼 한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적인 흐름에서 한어 교육의 내용과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선에서의 한어 학습서 및 한어 교육에 대해서는, 司譯院의 역관 양성 과정과 내용, 『老乞大』와 『朴通事』 및 이들 언해서의 편찬과 활용, 『譯語類解』 등의 유해류에 실린 화음의 성격 및 한어 어휘 및 번역에 관한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정광 1974; 姜信沆 1965, 1978; 이돈주 1989; 왕유휘 2002; 이윤자 2012; 신용권 2010가, 2010나, 2011, 2012, 2015; 황량 2018; 김주필 2019가 등). 또한 19세기의 필사본 및 간본 한어 회화서의 발행, 유해류의 어휘와 더불어 개화기의 한어 학습서의 특징 및 한어의 양상, 이들에 사용된 한글의 특성 등에 관하여 그 관심이 확대되어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姜信沆 1980; 왕청동 2001; 왕유휘 2002; 유재원 2005, 2015; 채진원 2006; 최유리 2006; 이은지 2008; 박재연・김아영 2009; 서미령 2013가, 2013나; 연규동 2015; 박현지 2017; 김남희 2018 등).

하지만 한어 학습서의 내용, 구성, 한글을 통해 표기된 한어 어음을 살펴보면 이 시기 한어 학습을 어떤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 학습서를 통해 배우게 된 한어의 정체가 무엇이며, 학습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어를 배우게 되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어 『你呢貴姓』(1864?), 『華音撮要』(1877년경), 『華音啓蒙』(1883년 경), 『華音啓蒙諺解』(1883?), 『華語類抄』(1883?), 『兒學編』(1908)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을 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 보완하는 것도 겸하고자 한다.

2. 학습서의 형식 및 내용 구성

1)『你呢貴姓』

노걸대류 가운데 가장 늦게 나온『重刊老乞大諺解』(1795)는 기존에 사용하던 老乞大類의 틀에 따르되 우측음을 당시 한어의 변화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여 편찬한 것이다.『飜譯老乞大』와 비교하여 볼 때 여기에는 한어 원문에 쓰인 어휘가 바뀐 것들이 있고, 언해문에서 보이는 한자어도『飜譯老乞大』에 비하여 원문의 것이 널리 쓰이게 되는 등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방식으로 언해가 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주필 2019가).[2] 그러나 기존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내용 구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말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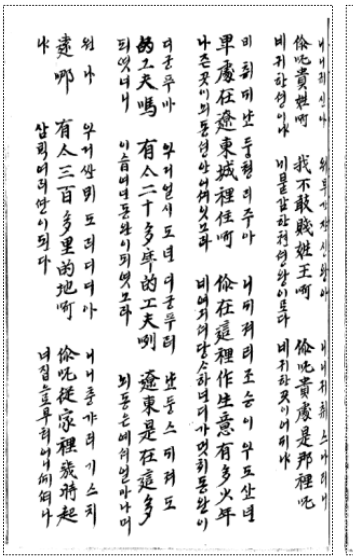
이에 비해서 편자 미상의 필사본 자료인『你呢貴姓』(1864?)은「千字文」-「百家姓」-「天干地支」-「二十八宿」-「算數」-「你呢貴姓」-「어휘 목록」으로 구성된 체재를 띤다. 表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텍스트에는 모두 한글로 한자의 우측에 華音을 표시하고 있는 형식을 보인다. 또한 회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你呢貴姓」부분은 漢字로 표기된 漢語 원문의 오른쪽에 한글로 華音을 표시하고 漢語文의 왼쪽에 언해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漢語文이 제시되고 華音을 漢字 아래에 제시하고, 그 아래에 ○를 표시하고 언해를 하고 있는 노걸대류와는 텍스트의 제시 방식이 다르다. 이는 아마도 이 자료가 필사 자료인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你呢貴姓」의 앞에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는「千字文」-「百家姓」-「天干地支」-「二十八宿」-「算數」에 관한 부분이다. 이곳은 한자와 한문을 학습하는 데에 전통적으로 이용해 왔던『千字文』을 華音으로 어떻게 읽는지를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여러 姓을 볼 수 있는「百家姓」의 華音,「天干地支」의 華音, 하늘의 별자리를 나타낸「二十八宿」의 華音,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百, 千, 萬, 億, 兆'의 수를 세는 단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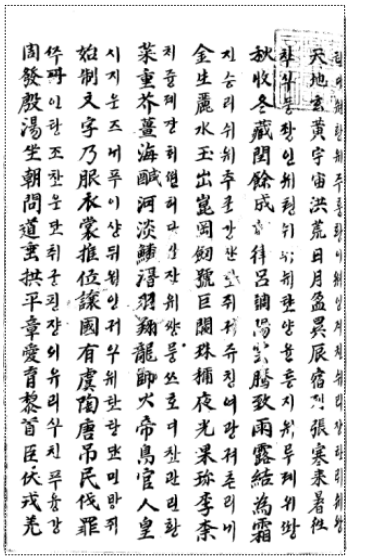
2) 이 연구는 金昌祚・邊憲 등이 엮어 편찬한『老乞大新釋』(1763)을 언해한『老乞大新釋諺解』(1765)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朴通事新釋諺解』를 대상으로 한 같은 방식의 연구 성과가 국제역학서학회 제11회 국제학술회의에서 김주필(2019나)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다.

「算數」의 華音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漢語를 학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 범주에 속하는 한어를 학습한 후에 주 텍스트가 되는 「你呢貴姓」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을 하도록 인도하는 순서로 학습의 위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전통적인 한어 학습서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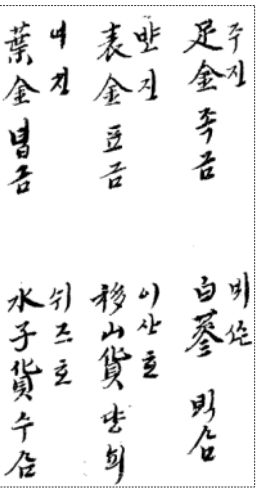


〈그림 1〉「你呢貴姓」의 「你呢貴姓」



〈그림 2〉「你呢貴姓」의 「千字文」

또한 주 텍스트에 해당하는 「你呢貴姓」의 다음에는 〈그림 3〉과 같이 「어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이곳에는 '足金[주진/족금]', '白蔘[비쓴/빅숨]', '長皮[장피/수달피]', '見樣紙[쟝양즈/견양지]' 등의 36개의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3] 이곳에 제시된 어휘는 '金', '貨', '蔘', '皮', '紙', '菜'로 끝나는 것으로 物名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편찬자는 「你呢貴姓」을 이해하는 데에 이와 같은 物名을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음절 한자어와 다음절 한자어를 구별하도록 함으로써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우려 한 것으



〈그림 3〉 어휘 목록

3) 여기에서 / 앞에 제시된 것이 한자어의 오른쪽에 제시된 華音이고, / 뒤에 제시된 것이 한자어의 아래쪽에 제시된 국어에서 사용되는 어휘이다.

로 이해된다. 비록 그 수효는 적지만 이런 물명 어휘 목록의 제시는 이 회화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2) 『華音撮要』

『華音撮要』(1877년경)은 편자 미상의 필사본 한어 회화 학습서로, 속표지의 "徐順昌丁丑菊月日仁洞"과 맨 끝의 "丁丑十月日"과 같은 기록을 볼 때 徐順昌이 丁丑年(1877) 가을에 필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1冊 69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은 현재 東京大學 小倉文庫에 소장되어 있다(청구 기호: L174580). 그 내용은 중국의 상인인 王大哥와 조선의 상인인 黃老大가 현재의 遼寧省 鳳凰縣에 해당하는 鳳凰城에서 나눈 물품 교역 및 경로와 관련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무역 관련 한어 학습서라고 하겠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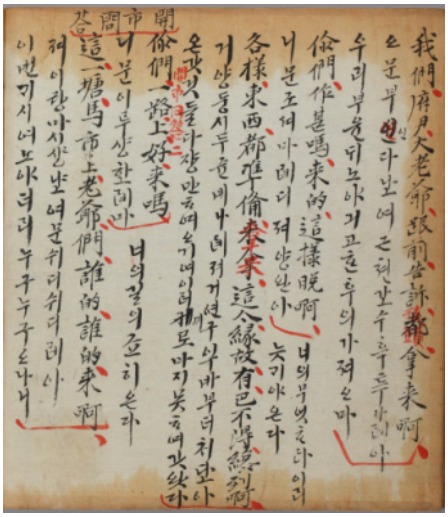
〈그림 4〉『華音撮要』의 대화문

전체 구성은 「조선 상인 黃老大와 중국 상인 王大哥를 중심으로 한 대화」-「伏兵荅問」[5)]-「開市問荅」-「勅使問荅」-「日用行語」-「日用雜語」의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조선 상인 黃老大와 중국 상인 王大哥를 중심으로 한 대화」는 〈1ㄱ~52ㄴ〉까지는 화자의 구분 없이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黃老大와 王大哥의 대화〈1ㄱ-8ㄴ〉, ② 黃老大와 何老四가 사냥갯값을 놓고 다투는 이야기〈8ㄴ-12ㄴ〉, ③ 黃老大가 성안에 들어와 점주 李四爺와 나누는 이야기〈12ㄴ-16ㄴ〉, ④ 李四爺와 黃老大의 대화〈16ㄴ-20ㄱ〉, ⑤ 黃老大와 수레꾼 姚

4) 이를 비롯하여 이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박재연 · 김아영(2009: 6-8)과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의 '화음촬요'('중화정음'으로 검색을 하여도 '화음촬요'로 연결)에 실린 박재연의 해제를 참고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中華正音』은 이 『華音撮要』와 관련을 맺고 있는 책이다.

5) 이곳의 '荅問'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問荅'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림 5〉「伏兵答問」과「開市問答」

夥計와의 대화〈2ㄱ-24ㄴ〉, ⑥ 黃老大와 王大哥와의 대화〈25ㄱ-28ㄴ〉, ⑦ 王四爺와 거간꾼 金老四와의 해삼 구매 대화〈28ㄴ-39ㄱ〉, ⑧ 王老四와 黃老大의 소가죽 구매 대화〈39ㄱ-45ㄴ〉, ⑨ 王四爺와 거간꾼 金老四, 黃老大와의 해삼 구매 대금 관련 대화〈45ㄴ-52ㄴ〉.

이 부분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大字로 배울 회화의 내용을 쓰고 문장이 끝나는 곳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한자 우측에 華音을 병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곳에는 언해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華音撮要』는 언해문이 제시되어 있는 『你呢貴姓』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반해서 뒷부분에 해당하는 여러 問答의 경우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漢語를 오른쪽에 쓰고 그 왼편에 華音을 병기한 후에 그 아래쪽에 언해를 해 놓았다. 문장이 긴 경우에는 「한어 원문」→「화음」→「언해문」의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日用行語」는 漢語의 어휘, 四字成語, 관용 표현 등을 모아 놓은 것이며, 「日用雜語」 역시 어휘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둘 모두 「漢語 표현」-「화음」-「대응하는 국어 어휘 또는 풀이」가 제시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日用行語」와 「日用雜語」를 통하여 이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 또는 표현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日用行語」와 「日用雜語」는 『你呢貴姓』에서 보이는 36개의 어휘를 제시한 「어휘 목록」과 비교하여 볼 때 「日用行語」에는 124개, 「日用雜語」에는 40개가 제시되어 있어서 훨씬 많다. 이런 「日用行語」와 「日用雜語」는 대화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언해문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你呢貴姓』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의 어휘 또는 표현이 제시된 것은 이런 언해문의 결핍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3)『華音啓蒙』과『華音啓蒙諺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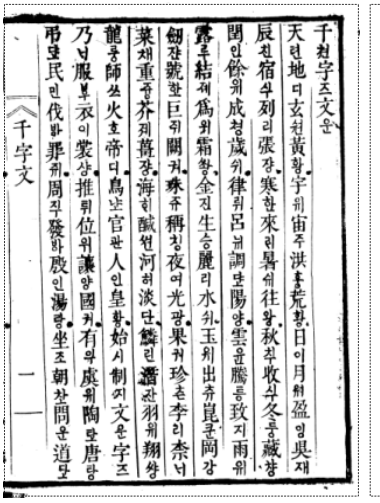
木活字本으로 李應憲에 의해 편찬된『華音啓蒙』(1883경)은「序」-「華音啓蒙 上」-「華音啓蒙 下」-「千字文」-「百家姓」-「天干地支」-「二十八宿」-「算數」-「華音正俗變異[千字文 百家姓]」의 순서로 텍스트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 텍스트에 해당하는「華音啓蒙」이외에도「千字文」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학습 대상으로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千字文」-「百家姓」-「天干地支」-「二十八宿」-「算數」는 앞에서 살핀『你呢貴姓』에서도 제시되어 있던 것이다. 실제『你呢貴姓』과『華音啓蒙』의 이 부분을 비교하여 보면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千字文」부분을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句마다 점을 표시해 두어서「천자문」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분절하여 읽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6] 또한 華音을 한자 아래에 달고 있다는 점도『你呢貴姓』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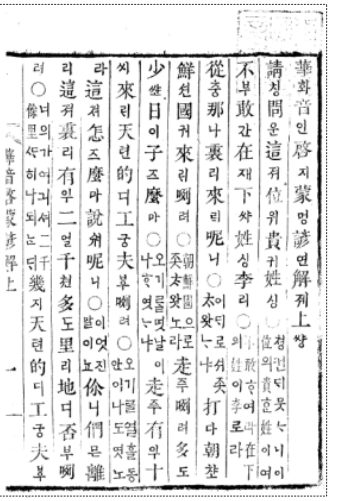
이『華音啓蒙』에서 주 텍스트가 되는「華音啓蒙」에는 華音 표시는 물론이거니와 언해도 되어 있지 않다. 이에「華音啓蒙」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언해하고 그 앞에 無題의 간단한「凡例」를 붙여「凡例」-「華音啓蒙諺解 上」-「華音啓蒙諺解 下」의 구성으로 편찬한 것이 〈그림 7〉과 같은 역자 미상의『華音啓蒙諺解』(1883?)이다.

〈그림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華音啓蒙諺解』는 전통적인 노걸대류의 언해 방식을 따라서 한자 아래에 華音을 달고 그 아래에 ○를 달고 2행으로 언해를

6) 이렇게 점을 표시하는 것은 이어지는「百家姓」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의미와는 무관한 것으로 4자씩 한 구를 이루도록 하여 구분의 편리와 암송 또는 기억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점이 편찬 당시에 달린 것인지 이후에 달린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점이 언제 찍힌 것이든 의미 단위로 분절하여 율격을 살려 읽는 종래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학습에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에는 의미가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을 때 검색의 편의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6〉『華音啓蒙』의「千字文」



〈그림 7〉『華音啓蒙諺解』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는데, 그것은 노걸대류와는 달리 華音을 하나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의 華音은 후술하겠지만 당시 현실음을 따라서 현실음 위주의 表音을 한 것이다. 따라서 노걸대류의 華音에서 볼 수 있는 正俗音의 구분은 이곳에서는 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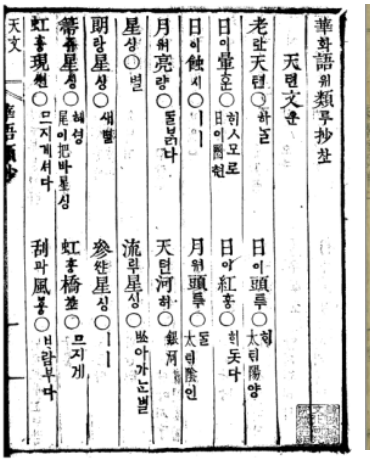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華音啓蒙』에는 千字文과 百家姓을 대상으로 하여 「華音正俗變異」가 실려 있다. 따라서 『華音啓蒙諺解』 이전에 유통되었던 正音을 살피고자 할 때에는 『華音啓蒙』의 「華音正俗變異」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4)『華語類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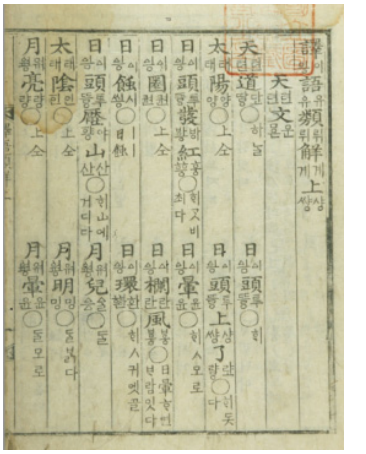
木版本으로 간행된 『華語類抄』(1883?)는 유해류 역학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天文〉, 〈時令〉, 〈氣候〉 등의 部類에 따라서 어휘를 묶어 제시하는 거시 구조를 띠고 있다. 그리고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漢語의 어휘를 먼저 제시한 후 한자 아래에 華音을 제시한 후 ○를 달고 2행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어 어휘를 제시하는 형태의 미시 구조를 띠고 있다.

이곳의 미시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漢語 어휘에 대해 ① 고유어로 대응하는 예(老란天텬○하늘, 郎랑星싱○새별), ② 구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예(虹홍現션○므지게셔다, 流류星싱○쏘아가는별), ③ 漢語와 同形의 한자어로 대응하는 예(日이蝕시○ㅣㅣ, 參쌴星싱○ㅣㅣ)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②와 같은 경

우가 적지 않다는 면에서 보면 『華語類抄』는 대역 어휘집이기는 하되 대응하는 한국어가 어휘가 아닌 구나 문장도 있으므로 단순 어휘집을 넘어서서 대역 어휘 제시를 기본으로 하는 漢韓辭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華語類抄』



〈그림 9〉『譯語類解補』

이런 『華語類抄』의 성격은 이것의 저본으로 간주되는 『譯語類解』(1690)와 『譯語類解補』(1775)가 지니고 있는 성격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달라진 것도 적지 않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그림 8〉과 〈그림 9〉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譯語類解補』와 『華語類抄』의 차이점

① 『譯語類解補』와 달리 『華語類抄』에서는 통용음에 해당하는 우측음만을 달아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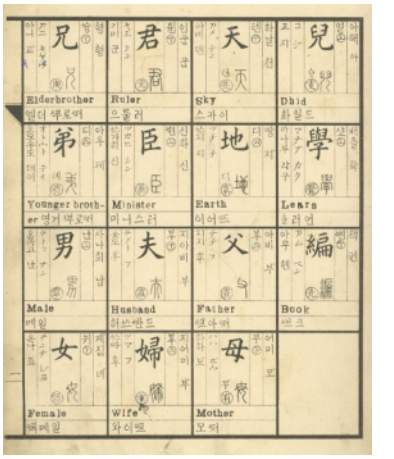
② '月亮'에 대응하는 국어 어휘를 『譯語類解補』에서는 '上仝'이라고 하여 '月亮'을 제시하고 있으나 『華語類抄』에서는 '둘붉다'로 제시를 하여 실제 널리 쓰이는 말을 찾아 보충을 하여 놓았다.

③ '日頭', '日暈'에서 볼 수 있듯이 『華語類抄』에서는 『譯語類解補』에는 없는 '太틔陽양', '日이圈권'과 같은 어휘가 국어 어휘를 제시하는 부분에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한자음을 유심히 살펴보면 국어 한자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한어의 음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譯語類解補』에는 실리지 않은 '月頭'에 대해서 '둘' 이외에도 '太틔陰인'과 같은 어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국어의 '힌'는 한어의 '日이頭투'뿐 아니라 '太틔陽양'에도 대응하고, 국어의 '힌ㅅ모로'는 '日이暈훈'뿐만 아니라 '日이圈권'에도 대응하는 어휘임을 보여 주는 정보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華語類抄』는 수록 표제어는 『譯語類解』나 『譯語類解補』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에 그치지 않으나 이런 미시 구조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한어와 국어 사이의 입체적인 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실제로는 표제어보다는 더 많은 어휘를 싣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兒學編』

『兒學編』(1908)은 본래 茶山 丁若鏞에 의해 19세기 초인 1804년경에 편찬된 한자 학습서이다. 茶山에 의해 편찬된 것은 漢字, 훈, 음을 제시한 전통적인 형태의 학습서였다. 여기에 수록된 글자는 2,000자인데 漢字들이 맺는 병렬관계, 유의관계, 대립관계 등을 이용하여 구성한 형태로 이루어진 학습서였다. 이런 구성법은 『訓蒙字會』(1527)의 방식을 본뜬 것이다. 이를 통해서 『兒學編』에서는 『千字文』의 한자들이 의미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단점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림 10〉 지석영의 『兒學編』

이 茶山의 『兒學編』을, 池錫永은 전통적인 한자 학습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림 10〉에서 보듯 漢語, 日本語, 英語를 학습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서로 성격을 바꾸어 편찬하였다. 또한 小篆을 제시하고, 漢字의 所屬韻을 표시하는 등 字典의 성격도 갖추도록 하여 기존 漢字 학습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漢字를 중심으로 한 다국어 어휘 학습서를 만들었다.

즉 한자가 지닌 의미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에 용이한 句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茶山의 『兒學編』의 장점을 이용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漢語, 日本語, 英語를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참조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漢字가 국어, 한어, 일본어, 영어를 서로 연결해 주는 중개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학습서의 구성을 보면 지석영의 『兒學編』은 상하 구분 없이 통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산의 『兒學編』이 上·下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標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4개의 글자가 하나의 구를 이루는 방식으로 한자들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한자들이 어떤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지는 目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다산의 『兒學編』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다산의 『兒學編』을 따르고 있으므로 앞부분에는 구체적인 지시물을 가리키는 有形者, 뒷부분에는 無爲의 뜻과 有爲의 뜻을 나타내는 無形者가 제시되어 있는데 상권은 명사 중심으로 구체적 형상을 지닌 것의 제시가 두드러지고, 하권은 형용사와 동사 중심으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의 제시가 두드러진다.

이런 거시 구조에 따라 제시된 한자의 미시 구조를 보면, 가운데 윗부분에 제시된 굵고 큰 글씨의 한자를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을 거쳐 아래로 이르는 순서로 읽도록 한다면 '국어(훈, 음) → 한어(음, 성조) → 일본어(훈, 음) → 영어'의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학습 순서는 국어 화자에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덜 익숙하고 생소한 것으로 나아가며 공부를 하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익숙한 것, 한자와 국어의 대응 관계를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기준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 한어 학습서 중 聲調를 한어 학습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이 『兒學編』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傍點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성조의 학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었다. 그러나 『兒學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조에 관한 범례를 만들고 실제 수록 한자의 화음 모두에 四聲標를 달아 학습 대상으로 성조를 부활시켰다.

[2] 『兒學編』 범례의 성조 관련 기술

四聲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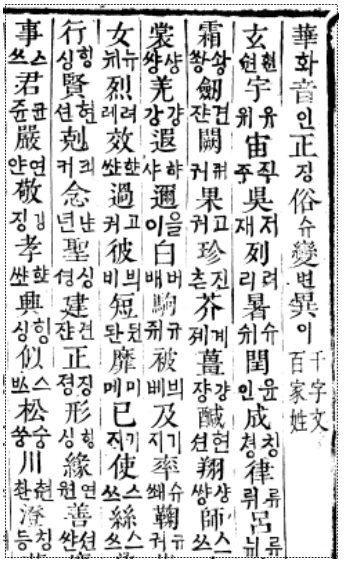
促而重曰上平 ㉮, 長而輕曰下平 ㉯, 曲而緩曰上聲 ㉰, 直而急曰去聲 ㉱

[소리가 짧고 무거운 것을 상평이라 하며 ㉮으로 표시하고, 소리가 길고 가벼운 것을 하평이라 하며 ㉯으로 표시하고, 소리가 굴곡이 있고 느린 것을 상성이라 하며 ㉰으로 표시하고, 소리가 곧고 급한 것을 거성이라 하고 ㉱으로 표시한다 (번역은 필자)]

3. 한어 어음의 표기와 학습 목표로 설정한 화음

1) 國俗撰字之法에 의한 華音 表記

19세기에 나온 『你呢貴姓』, 『華音撮要』, 『華音啓蒙』, 『華音啓蒙諺解』, 『華語類抄』와 20세기 초에 나온 『兒學編』은 華音을 國俗撰字之法에 따라 표기하였다. 『華音啓蒙』에는 「千字文」과 「百家省」에 〈그림 11〉과 같이 「華音正俗變異」라 하여 正俗音을 병기하고 있는데, 이때 우측에 표시된 正音이나 좌측에 표시된 俗音이나 모두 國俗撰字之法에 따른 표기가 되어 있다. 한어음을 표기한 이전의 책들에서 정음을 좌측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인데 비하면 정음을 이처럼 우측에 표시하는 것은 색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림 11〉「華音正俗變異」

이처럼 정음을 國俗撰字之法에 따라서 표기를 하는 것은 노걸대류에서 『平壤版 老乞大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에서 좌측음을 『四聲通解』의 正音(『洪武正韻譯訓』의 음)을 洪武正韻譯訓식의 표기법으로 제시해 놓은 것과 비교하여 보면 이채롭다. 이는 18세기와 달리 이 시기에는 정속음 모두 國俗撰字之法의 표기 방식이 선호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國俗撰字之法이 한어를 적는 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하겠다.

國俗撰字之法에 관해서는 『飜譯老乞大朴通事』의 凡例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3]『飜譯老乞大朴通事』의 凡例의 國俗撰字之法

一 諺音

在左者 卽通攷所制之字 在右者 今以漢音 依國俗撰字之法 而作字字也 通攷字體 多與國俗撰字之法不同 其用雙字爲初聲 及ㅇㅇㅂ爲終聲者 初學雖資師授 率多疑碍 故今依俗撰字體 而作字如左云 如通攷內 齊찌 其끼 皮삐 調땋 愁쯩 ㅈ향 着짱 今書 찌爲치 끼爲키 삐爲피 땋爲탼 쯩爲츄 향爲햔 짱爲죠爲쟌之類 ㅋㅌㅍㅊㅎ 乃通攷所用次淸之音 而全濁初聲之呼 亦以之 故今之反譯全濁初聲 皆用 次淸爲初聲 旁加二點 以存濁音之呼勢 而明其爲全濁之聲[왼쪽에 있는 것은 곧 『통고』에서 정한 글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한음으로써 국속찬자지법(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글자를 적는 방법)에 따라 글자를 지은 것이다. 『통고』의 글자 모양은 국속찬자지법과 같지 않은 것이 많은데, 초성으로 쌍자(각자병서)를 사용하는 것에서 'ㅇ', 'ㅂ'을 종성으로 쓰는 것에 이른다. 처음에는 비록 스승에서 자문하여 배울 수는 있으나 따르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한 자체에 따라, 『통고』 안의 '齊찌', '其끼', '皮삐', '調땋', '愁쯩', 'ㅈ향', '着짱'와 같이 왼쪽에 있는 것을 이제부터는 '찌'를 '치'로 '끼'를 '키'로 '삐'를 '피'로 '땋'를 '탼'로 '쯩'를 '츄'로 '향'를 '햔'로 '짱'를 '죠' 또는 '쟌'와 같이 적도록 한다. 'ㅋ', 'ㅌ', 'ㅍ', 'ㅊ', 'ㅎ'는 이내 『통고』에서는 차청의 음을 위해 쓰인 것이지만 전탁의 초성을 발음할 때 또한 그것('ㅋ', 'ㅌ', 'ㅍ', 'ㅊ', 'ㅎ')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전탁 초성을 역할(옮길) 때에는 모두 차청을 초성으로 삼아 쓰되, 옆에 이점을 더하여 탁음의 기운을 보존하고 전탁의 소리를 명료하게 드러낸다.]

一 ㅇㅂ爲終聲

蒙古韻內 蕭爻尤等 平上去三聲 各韻及藥韻 皆用ㅇ爲終聲 故通攷亦後 蒙韻於蕭爻尤等 平上去三聲 各韻以ㅇ爲終聲 而唯藥韻 則以ㅂ爲終聲 俗呼藥韻諸字 堅與蕭爻同韻 則蒙韻制字 亦不差謬 而通攷 以ㅂ爲終聲者 殊不可曉也 今之反譯 調땋爲탼 愁쯩爲쟌 作잦爲조쟌著 ㅇ本非ㅜㅗ ㅂ本非ㅗㅛ之聲 而蕭爻韻之ㅇ 呼如ㅜ 藥韻之ㅂ 呼如ㅗㅛ 故以ㅇㅂ爲終聲者 今亦各依本韻之呼 飜爲ㅗㅛㅗ 而書之 以便初學之習焉[『몽고운』 내에 蕭韻, 爻韻, 尤韻 등의 평성, 상성, 거성의 3성 각 운과 藥韻은 모두 'ㅇ'을 종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통고 또한 蒙韻을 따라 蕭韻, 爻韻, 尤韻 등의 평성, 상성, 거성 3성의 각 운을 'ㅇ'으로써 종성을 삼는다. 그러나 오직 藥韻만은 'ㅂ'을 종성으로 삼는데, 藥韻의 여러 글자가 항간에서 蕭韻, 爻韻, 尤韻과 同韻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蒙韻의 제자(글자를 만듦)에서 또한 어긋남과 그릇됨이 없으므로 通攷에서 'ㅂ'으로써 종성을 삼는 것은 특수하여 달리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제 反譯에서 調'땋'가 '탼'가 되고 愁'쯩'가 '쟌'가 되고 作'잦'이 '조, 죠'로 나타낸다. 'ㅂ'은 본래 'ㅜ, ㅗ'가 아니고 'ㅂ'은 본래 'ㅗ, ㅛ'의 소리가 아니므로 蕭韻과 爻韻의 'ㅇ'은 'ㅜ'와 같이 소리 내고, 藥韻의 'ㅂ'은 'ㅗ, ㅛ'와 같이 소리를 낸다. 따라서 'ㅇ, ㅂ'을 종성으로 삼는 것은

이제 또한 각각 본래의 운의 냄(발음)에 따라서 'ㅗ, ㅛ, ㅜ(*ㅗ의 잘못)'로 번역하여 그것을 씀으로써 처음 배우는 것에 편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飜譯老乞大』, 『飜譯朴通事』에서는 우측음을 적을 때에는 각자 병서를 사용하지 않고, 종성으로 'ㅸ', 'ㅱ'을 쓰지 않고 중성자를 이용하여 표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표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편하게 한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표기법이 『重刊老乞大諺解』의 우측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으나, 19세기 이후에 나온 한어 학습서의 華音 표기를 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병서의 사용과 연서의 사용 등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차이가 관찰된다.

①『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洪武正韻譯訓 방식의 표기로 되어 있는 좌측음에서는 각자 병서가 사용되어 있으나 당시 속음을 적은 우측음에서는 그렇지 않다. ② 합용 병서는 좌측음과 우측음 표기 모두에서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다. ③'ㅸ'은 좌측음과 우측음 표기 모두에 사용되어 있다.

이와 비교하여 보면 19세기 이후의 한어 학습서에서는 ㅅ계 합용 병서의 사용이 『華語類抄』를 제외하고는 편차가 적지는 않으나 모두 관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華音撮要』, 『華音啓蒙』, 『華音啓蒙諺解』에서는 ㅅ계 합용 병서는 'ㅅㅈ'에서만 관찰된다. 이에 반해 『你呢貴姓』에서는 'ㅅㅐ', 'ㅆ'의 쓰임도 보이고, 『兒學編』에서는 'ㅅㅈ', 'ㅅㅐ', 'ㅆ'의 쓰임도 보인다. 그리고 『華音啓蒙』에는 단 한 예이기는 하나 'ㅂㅅ'의 사용도 관찰된다.[7)]

〈표 1〉 19세기, 20세기 초 한어 학습서의 표기의 비교

문헌 / 표기	『你呢貴姓』	『華音撮要』	『華音啓蒙』	『華音啓蒙諺解』	『華語類抄』	『兒學編』
병서	甘싼, 匡쫭, 煩쌴, 周쑤, 鄭쩡	跟끈, 剛쌍, 懇끈 先쎤, 想썅,	甘싼, 更끙 似쁘	剛쌍 下쌰, 少쑈, 三싼, 現쎤,	現쎤, 參쌴, 山쌴, 史쓰, 上썅, 散싼, 沙싸, 小쑈,	肝싼, 岡쌍, 溝꾸, 根끈, 羹껑, 決꿰, 窮뀽, 頂찡, 膽쌈, 經끽, 砧쎤, 貞쩡,

7) 그러나 전체적인 표기 양상을 보건대 이곳의 'ㅂㅅ'은 'ㅆ'을 나타내려 한 것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시기의 국어 자료에서 'ㅆ'을 'ㅂㅅ'으로 적은 것이 관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어 표기의 관습에 이끌려 한자음 표기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醎쎤, 翔썅, 似쓰	四쓰, 三싼, 送쑹, 下쌰, 現쎤, 兄쑹, 向썅, 十씨	醎쎤, 傷썅, 使쓰, 似쓰, 下쌰 ※ 匡쾅, 周쥐	十씨, 算싼, 兄쑹, 上썅	算싼, 鬆쑹	智씌, 陟에, 編쏀, 伯쒜, 賓쏀, 糞쎈, 榧예, 醉쒜, 正쩡 孫쑨, 僧썽, 相썅, 松쑹, 杉싼, 色써, 水쒜, 裳쌍, 兄쑹, 閒쏀, 霞쌰, 巷썅
연서 (ㅱ)	미사용	일부 사용 夫뿌, 風뿡 福뿌, 飯뱐	發뱌, 伏뿌, 鳳뿡, 弗뿌	夫뿌, 府뿌, 分뽄, 放뱡	幅뿌, 佛뿌, 飛뾔, 髮뱌	阪뱐, 腹뿌, 髮뱌
ㅿ	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儒수, 乳수, 肉쉬, 日ㅅ, 蓑상, 蕊쒜

이와 같은 합용 병서의 쓰임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19세기 이후의 한어의 실제 발음 실태에 맞추어 華音을 원음에 가깝게 표음하려 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 과정에서 국어의 된소리를 표기하는 데에 쓰인 ㅅ계 합용 병서를 이용하여 화음을 표기하였다는 점은 국어 화자들에게 익숙한 국어의 표기 방법을 이용하여 화음 표기를 한 것으로 학습자들의 표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실제 발음을 쉽게 하고자 했던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兒學編』에서 보듯이 ㅇ계 합용 병서로 보이는 것이 ‘ㅇㅐ’, ‘ㅇㅈ’, ‘ㅇㅊ’, ‘ㅇ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들은 모두 脣齒音, 舌尖前音, 舌尖後音(일부)과 같이 齒音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兒學編』의 범례에는 “音之輕微者난 傍加圈標[음이 경미한 것에는 옆에 圈標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의 기술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성조상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운모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ㅇㅐ’, ‘ㅇㅈ’, ‘ㅇㅊ’, ‘ㅇㅅ’ 등과 같이 성모의 표기에서 보이는 ‘ㅇ’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ㅇ’이 붙은 ‘ㅇㅐ’, ‘ㅇㅈ’, ‘ㅇㅊ’, ‘ㅇㅅ’은 각각 ‘ㅂ’, ‘ㅈ’, ‘ㅊ’, ‘ㅅ’이 가리키는 소리보다는 가볍고 약한 소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같은 성모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휘에 따라서는 다른 어휘의 성모보다는 가볍고 약하게 발음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음성적인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찰성]을 지니고 속이 비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했던 ‘ㅇ’을 표기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의 ‘ㅇ’을 연서 표기에 쓰인 ‘ㅸ’의 ‘ㅇ’과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본다면 ‘ㅸ’에 쓰인 ‘ㅇ’과의 공통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ㅸ’은 脣音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ㅂ’과 결합하여 순치 마찰음 /f/가 지닌 [치음성]과 [마찰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즉 ‘ㅂ’이 나타낼 수 있는 [순음성]에 ‘ㅇ’이 나타낼 수 있는 [치음성]과 [마찰성]이 결합하여 /f/를 표기한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생각하여 보면 ‘ㅇ’은 [치음성]과 [마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므로 ‘ᅇᄉ’, ‘ᅇᄌ’, ‘ᅇᄎ’이 ‘ㅅ’, ‘ㅈ’, ‘ㅊ’보다는 훨씬 이[齒]에 가깝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찰음과 파찰음과 결합한 ‘ᅇᄉ’, ‘ᅇᄌ’, ‘ᅇᄎ’은 보다 앞에서 조음이 되는 치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糞ᄲᅇᅧᆫ’, ‘榧ᄲᅇᅦ’와 같이 脣輕音을 적는 데에 ‘ㅸ’이 아닌 ‘ᄲᅇ’을 쓴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兒學編』에서 유일한 예외를 보이는 것이 脣重音 滂母인 ‘噴’인데, 이 글자는 脣輕音 奉母인 ‘濆’과 통용되는 글자이므로 이것이 /f/의 음을 갖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ᄲᅇ’은 脣輕音 표기를 위해서 ‘ㅸ’과 더불어 쓰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ㅇ’은 [치음성]과 [마찰성]을 드러내는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상의 특징을 나타내려 한 표기였던 것으로 이해된다.[8)]

다음으로 ‘ㅅ’으로 표기되는 음들에서는 ‘ㅆ’으로 표기된 것이 모든 문헌에서 두루 관찰된다. 이들은 ‘ㅅㅅ’, ‘ㅈㅈ’, ‘ㅊㅊ’, ‘ㅉㅉ’ 등이 나타난 된소리를 적기 위한 것으로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합용 병서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같은 글자가 나란히 사용된 것이므로 각자 병서로 간주해 두기로 한다.

이어서 이전 시기의 학습서에서 日母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여 왔던 ‘ㅿ’은 『老乞大諺解』(1670) 이후로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나온 한어 학습서에서도 이 경향을 따라 ‘ㅇ’를 이용하여 표기를 하였다.[9)] 그런데 『兒學編』

8) 이와 같은 ㅇ을 이용한 이른바 ㅇ계 합용 병서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준환(2019)에서 자료의 제시와 더불어 음운론적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9) 老乞大諺解類의 좌측음과 우측음의 표기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은 여러 연구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박철민(2018)에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되어 있다. 이곳에서도 『老乞大諺解』(1670)부터 漢音의 표기에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 시기의 老乞大諺解류를 제2시기

에서만은 日母를 적는 데에 ‘ㅿ’을 사용하고 있다.

흔히 쓰이는 방식에 따라서 日母를 ‘ㅇ’을 이용하여 표기하면 日母가 음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華音의 변화로 인해 /ø/의 음가를 지니게 된 疑母, 影母, 喩母 등을 ‘ㅇ’으로 표기하는 것과 구별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兒學編』에서는 종래 日母를 적기 위해 써 왔던 ‘ㅿ’을 되살려 日母를 표시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日母라 하더라도 兒化가 되어 성모의 실현이 달라진 것들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兒얼, 耳얼, 鮞얼, 餌얼, 二얼’ 등은 모두 ‘ㅇ’으로 표음을 하여 漢語의 변화에 따른 성모 실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10)]

끝으로 연서인 ‘ㅸ’은 『你呢貴姓』에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고, 『華音撮要』에서는 위에서 보인 예들을 제외하고는 그 쓰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문헌에서는 ‘ㅸ’의 쓰임이 두루 보인다. 그러나 ‘ㅸ’이 ‘ㅂ’ 또는 ‘ㅍ’과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脣輕音에만 국한되어 ‘ㅸ’이 쓰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에 들어가는 것으로 살폈다. 이에 따르면 각 시기 문헌과 시기별 좌측음과 우측음 및 이와 관련한 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박철민 2018: 91).

시기	1시기 (16세기)	2시기 (1670년대~1734년)	3시기 (1734년~1763년)	4시기 (1763년~1795년)
좌측음	『사성통해』의 속음		『사성통해』의 정음	
우측음	‘ㆍ’, ‘ㅇ’, ‘ㆆ’ 사용	‘ㅇ’, ‘ㅿ’의 혼동, 兒化 반영, ‘ㆆ’ 폐지		구개음화, 양성모음화
문헌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역어유해』, 『역어유해보』 『오륜전비언해』	『경서정음』 『평양판 노걸대언해』	『노걸대신석언해』 『박통사신석언해』 『중간노걸대언해』

10) 이처럼 日母 가운데에서 兒化를 겪은 것들은 중고음을 기준으로 할 때 止攝 開口 3等에 속하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은 聲母가 零聲母가 되고 明代 후기에 杭州에서 편찬된 『西儒耳目資』(1626)에 이 零聲母 아래에서 운모 /-ɚ[ul]/이 기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ɿ/는 支思(辭)韻 /-ï/ 가운데 精組는 /-ɿ/로 변한 것과는 달리 章組에서 변한 결과이다(葉寶奎 2001: 296, 300-301). 이를 종합하여 보면 兒化는 성모의 영성모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 운모가 /-ï/>/-ɿ/>/-ɚ[ul]/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明代였다(李如龍 2001: 39-40).

2) 학습 목표로 설정된 華音

이와 같이 19세기 이후의 한어 학습서에서는 國俗撰字之法에 따라서 華音을 표기하되 당시 유통되던 華音을 정확히 표음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표기를 통하여 학습 목표로 반영하고자 한 당시 華音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세기의 華音이 이전 시기의 것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학습서 가운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 11〉에서 제시한 『華音啓蒙』의 「華音正俗變異」이다. 이곳에 실린 글자는 「千字文」이 288자이고, 「百家姓」이 68자이다. 이를 『華音啓蒙』에서는 "初釋正音 次釋俗音"이라고 주기하고 있어서 이곳에 제시된 음을 釋으로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356자를 잘 살펴보면 19세기 漢語에서의 음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4] 「華音正俗變異」에 실린 正俗音의 발생 원인 또는 유형

① 牙音 성모의 구개음화: 劍쟌/견, 芥졔/계, 薑쟝/강, 及지/기, 豈치/키, 己지/기, 景징/깅, 建쟌/견, 慶칭/킹, 競징/깅, 君쥰/균, 敬징/깅, 基지/기, 竟징/깅, 交쟢/갸, 堅쟌/건, 京징/깅……

② 喉音 성모의 구개음화: 玄쉰/휀, 鹹셴/현, 遐샤/햐, 效쌰/햐, 行싱/힝, 賢셴/현, 形싱/힝……

③ 全淸 성모의 次淸化, 次淸 성모의 全淸化 : 崑쿤/군, 珍츤/진, 啓지/키, 馳지/치……

④ 경음으로 청취: 翔썅/샹, 師쓰/스, 裳썅/샹, 傷썅/샹, 使쓰/스, 絲쓰/스, 善쎤/션, 事쓰/스, 孝쏴/햐,[11] 似쓰/스, 松쑹/숭, 思쓰/스, 神씬/신, 訓휸/쑨, 兄쑹/훙, 世씨/시, 禪쌴/션, 甘깐/간, 鄭쩡/징, 匡꽝/쾅……

⑤ 운모의 변화: 例리/려, 閏인/윤, 律뤼/류, 果궈/고, 珍츤/진, 始시/스, 皮비/븨, 念년/난, 聖셩/싱, 思쓰/스, 甚시/쉬, 兒얼/을, 枝지/즈, 滿만/먼, 二얼/을, 裵베/븨, 內네/늬, 茂맢/믓, 論룬/른, 宇위/유, 暑쉬/슈, 切체/처, 逐쥐/주, 據쥐/규, 鬱위/유, 辱위/유, 浴위/유……

⑥ 유추에 의한 변화: 澄등/칭, 鐔탄/신……

11) 이는 '햐〉샤〉쏴'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후행하는 '訓'의 경우도 '휸〉슌〉쑨'의 과정을 거치고, '兄'도 '훙〉슝〉쑹'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보면 19세기의 華音에서 실제로 유통되던 음이 조선에서 현실음으로 알고 배우던 음과 달라진 것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華音啓蒙』에서는 이처럼 한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華音啓蒙』을 통하여 한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유통되었던 음에 관한 지식도 익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각 省에 따라서 발음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 당시 한어의 다양한 사용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에 따른 방언적 차이와 언어 변화 속도에서 보이는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重刊老乞大諺解』(1795)의 우측음과 비교하여 보면 華音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季계/기, 脚걉/교, 金김/긴, 今김/긴, 繫계/기'와 '京깅/징, 講걍/쟝, 家가/쟈'[12] 등에서 보듯이 牙音 성모의 구개음화가 일부에서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華音啓蒙』에서는 [4]의 ①에서 보듯이 牙音에서 /i/ 앞에 놓인 것들은 모두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4]의 ②에서 보듯이 喉音 성모에서도 /i/ 앞에 놓인 것들은 구개음화가 되어 있다. 이는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한어에서는 牙音과 喉音의 구개음화가 활발히 확산되어 대폭적인 음운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구개음화에 따른 변화를, 본고의 검토 대상인 문헌 중 가장 일찍 나온『你呢貴姓』에서도 '去취, 結계, 金진, 劒쟌, 芥졔, 駒쥐, 及지, 豈치, 景징, 建쟌', '玄쉔, 鹹쎤, 效쇼, 行싱, 賢셴, 孝쇼' 등과 같이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華音撮要』에서는 '家쟈(13)/갸(3)/자(1)', '幾기(8)/지(1)', '薑장(3)/강(1)/쟝(1)', '季지(3)', '見쟌(3)', '金진(2)', '京징(1)', '價갸(3)', '街갸(1)'과 같이 牙音에서는 구개음화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으며, '下쌰(9)/샤(1)', '現쎤(3)', '兄쓩(4)', '喜시(2)'와 같이 喉音에서는 구개음화된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인다(박현지 2017: 25-38).[13] 따라서『你呢貴姓』에 비해서『華音撮要』의 牙音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어의 구개음화가 더디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사선 앞의 것은 左側音이고 뒤의 것은 右側音을 나타낸다.

13) 여기에서 괄호 안에 보인 숫자는 해당 음들의 출현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비해 『華語類抄』에서는 ‘橋좌, 輕칭, 今진, 更징, 氣치, 江쟝, 禁진, 家쟈, 卿징, 講쟝, 監쟌, 京징, 敎쟌, 檢쟌, 軍쥰’ 등과 같이 牙音에서의 구개음화를, ‘現쎤, 下쌰, 夏쌰, 縣쎤, 學샨, 訓쓘’ 등과 같이 喉音에서의 구개음화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譯語類解補』에서는 ‘橋쾨, 今긴, 更깅, 氣키, 江걍, 講걍, 京깅, 敎괸’ 등의 牙音은 물론이고 ‘下햐, 夏햐, 縣현, 學효, 訓휸’ 등의 喉音에서도 구개음화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譯語類解補』와 비교할 때 『華語類抄』의 두드러진 차이는 이런 구개음화의 반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14] 이런 면을 볼 때 『華語類抄』에서는 『譯語類解補』에서 보이는 牙音과 喉音에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華音을 한어의 현실에 맞게 구개음화를 겪은 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큰 과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兒學編』에서는 본고의 검토 대상 중 가장 늦게 편찬되고 20세기 초에 나온 것에 충실하게 위와 같은 華音에서의 구개음화를 牙音과 喉音에서 모두 반영하고 있다. 『兒學編』에서는 이 이외에도 齒頭音 성모 가운데에 운모에 /-i-/를 지니는 것 앞에서 일어난 舌面音化(구개음화)의 결과로 형성된 /tɕ/ 등을 舌尖前音 /ts/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설첨전음에는 ‘ㅈ’, ‘ㅊ’, ‘ㅅ’ 등의 ㅇ계 합용 병서를 쓰고 설면음에는 ‘ㅈ’, ‘ㅊ’, ‘ㅅ’ 등을 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15] 예를 들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4) 이런 점에서 보면 『譯語類解』와 『譯語類解補』를 저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華語類抄』는 대응하는 국어 어휘 또는 표현에 변화를 반영하고자 한 동기뿐만 아니라 華音의 대폭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편찬의 큰 동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15) 이와 관련한 범례의 기술을 들어 보면 “華音之ㅜ者난 ㅜㅜ之間音이요 ㅂ者난 부우之間音이니[輕脣音吹脣而呼] 他中聲에 有ㅐ 此樣 初聲者난 皆倣此하고 ㅇ者난 이우之重音이요 ㅎ者난 하오之重音이니 他初聲에 有ㅗㅜ 此樣中聲者난 皆倣此하고 音之輕微者난 傍加圈標”와 같다. 이곳에서 맨 끝에 있는 “音之輕微者난 傍加圈標”가 이에 해당하는데, ‘ㅇ’을 圈標로 가리키고 이 표가 붙은 것은 음이 경미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한어의 발음 실태를 가지고서 살펴야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기에 어렵다. 이에 현대 普通話에서의 설첨전음과 설면음의 발음 방법을 잠깐 살펴보면 이 둘은 발음의 세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徐世榮 1999: 43-45). 이런 점에서 『兒學編』 범례의 기술에 따라서 ‘ㅇ’을 한 것은 경미한 것이라는 것을 과연 설첨전음과 설면음의 발음에서 세기의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를 나타낸 것인지는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兒學編』에서의 중고음 精母 /ts/의 설면음/tɕ/과 설첨전음/ts/의 구별

① ㅈ/tɕ/: 將쟝, 津진, 井징, 蕉죠, 菁징, 椒죠, 節졔, 稷지, 鰶중, 尖젠

② ㅈ/ts/: 棗죠, 蚤죠

③ ㅈ /ts/: 姊姊ㅈㅈ, 祖ㅈㅈ 宗ㅈㅇ, 子ㅈㅈ, 足ㅈㅈ, 騣ㅈㅇ, 竈ㅈㅏㅇ, 甑ㅈㅓㅇ, 樽ㅈㅜㄴ, 鑿ㅈㅏㅇ, 早ㅈㅏㅇ, 灾災ㅈㅐ

④ ㅈ /tɕ/: 蛆ㅈㅈ

이를 보면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첨전음은 ㅇ계 합용 병서를 쓰는 경향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언어 변화에 한자에 따라서 시차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한자음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혼란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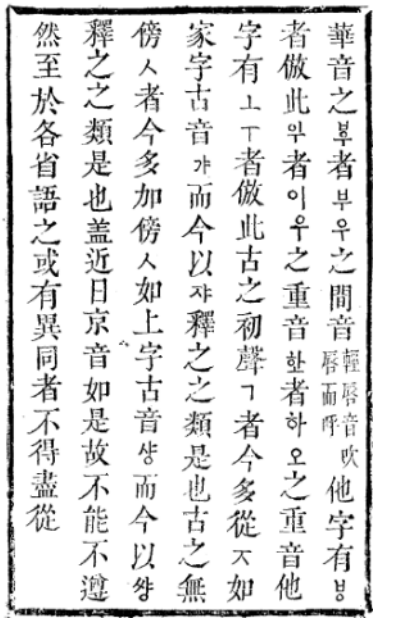
그리고 [4]의 ④처럼 경음으로 청취된 것을 반영한 것을 보면 정음에서는 'ㅅ'으로 표기되는 것이 속음에서는 'ㅆ'으로 표기된 것이 있는데, 이는 조선인들이 듣기에 한어에서 /s/ 계열의 소리를 긴장하여 엉기게 발음하는 것을 적절히 반영하고자 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華音啓蒙諺解』의 권두에 실린 범례에는 〈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를 보면 'ㅅ'을 왼쪽에 붙인 것으로 '上샹→썅'을 들고 있는데, 오늘날의 京音(북경음)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보여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각 省의 華音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기도 한데, 그 양상을 모두 실을 수는 없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음성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華音의 특성으로 보이는데,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 없는 한어의 음운 체계에서는 경음화를 설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어의 음운 변화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도리어 이보다는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 있는 조선어 화자들의 귀에 국어의 경음에 대응할 만한 음성적인 특색이 화음에도 있음을 인지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쓰이는 원음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자 하는 한어 학습서의 편찬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운론적인 변화와 음성적인 변이가 엄밀히 변별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나「華音正俗變異」에서는 이를 俗音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俗音의 한 가지 유형으로 포함하여 다루기로 한다.

끝으로 來母 /l-/과 泥母 /n-/이『你呢貴姓』과『華音撮要』를 보면 'ㄹ'과 'ㄴ'

이 명확히 구별되지 못하고 쓰이는 것들이 보인다. 『你呢貴姓』에서는 來母를 'ㄹ'로 적은 예는 74%에 달하며 泥母를 'ㄹ'으로 적은 예는 50%에 달한다(유재원 2005: 55-56). 즉 來母와 泥母의 혼동이 적지 않게 널리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혼동은 『華音撮要』에서도 상당히 보이는데, 그 양상은 來母가 'ㄹ'뿐만 아니라 'ㄴ'으로 표기되는 예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拉나(2)', '咧녀(60)', '老노(7)/놔(2)', '來니(53)/닐(3)', '連년(4)', '兩냥(6)', '零닝(2)'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박현지 2017: 22-25). 그러나 그 반대는 잘 보이지 않는다.


華音之ㅂ者부우之間音輕唇音吹唇而呼他字有ㅂ
者倣此ㅸ者이우之重音ㅸ者하오之重音他
字有ㅗㅜ者倣此古之初聲ㄱ者今多從ㅈ如
家字古音갸而今以쟈釋之之類是也古之無
傍ㅅ者今多加傍ㅅ如上字古音샹而今以샹
釋之之類是也盖近日京音如是故不能不遵
然至於各省語之或有異同者不得盡從

〈그림 12〉『華音啓蒙諺解』 범례

이와 같은 양상은 국어에서 두음 법칙 등으로 인하여 來母와 泥母가 잘 구별되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으며(유재원 2005: 56, 박현지 2017: 24), 이 둘이 명확히 구별되지 못하는 한어의 음을 접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김태성 2003: 137, 유재원 2005: 56, 이재돈 2012: 396, 박현지 2017: 24).[16] 다른 한어 학습서에서는 來母와 泥母가 잘

16) 이와 관련하여 이재돈(2012: 369)에서는 구체적으로 『庚申燕行錄』의 경우를 들며 한어 동북 방언의 특징과 관련지어 살피고 있다. 현대 방언에서는 이런 현상은 官話에 속하는 武漢/n-/, 成都/n-/, 合肥/l-/, 揚州/l-/와 湘語에 속하는 長沙/l-/, 雙峰/l-/와 贛語에 속하는 南昌/l-/과 閩語에 속하는 廈門/l-(拿連)~n-(南連)/ 방언에서 나타난다. 대체로 보아 官話에서는 /n-/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나 이 외의 방언에서는 /l-/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南昌에서는 泥母는 /ɳ-/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이상은 『漢語方音字彙』(1999)의 각 방언의 성모 체계를 참고]. 官話 가운데 /l-/을 보이는 곳은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고 /n-/을 보이는 곳은 서남쪽에 위치한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漢語方音字彙』에서는 동북 방언의 특징에 관한 것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알기 어려운데, 심소희(2006: 273-274)를 보면 동북 방언에서는 來母와 泥母는 잘 변별되는 것으로 논의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방 방언에서는 泥母와 來母가 잘 변별되지 않는 지역이 꽤 널리 분포하고, 동북 방언에서는 이 둘이 잘 변별되는 양상이 보고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 『你呢貴姓』과 『華音撮要』 등의 19세기 한어 학습

구별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이런 혼동은 국어에 이끌린 것이라기보다는 음의 근간이 된 한어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양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 19세기, 20세기 초에 조선에서 나온 한어 학습서들은 한어에서의 어음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쓴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조선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방언적 양상까지도 포함함으로써 북경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한어의 공시적인 양상을 상당히 폭넓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華音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도록 하겠다. 거칠게 말하자면 華音은 조선에서 통용되는 한자음과는 달리 漢語에서 사용되는 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華音이 正音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華音撮要』를 대상으로 하여 고찰을 한 박현지(2017: 2-3)에서는 이 책이 맺고 있는 『中華正音』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곳에서의 華音은 中華正音의 약자로 본 바 있다.

그런데 『華音啓蒙』에 제시된 「華音正俗變異」를 보면 華音에도 正音과 俗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華音正俗變異」를 보면 구개음화로 인한 漢語의 변화로 인한 正音과 俗音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음운 규칙에 의해서 일어난 점진적인 음운 변화도 正俗의 관계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언어가 늘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고, 이 시기 한어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華音에는 늘 正音과 俗音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헌에 따라서는 華音이 곧 正音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華音이 꼭 正音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華音 중 상당 부분은 한어 방언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특히 조선과 중국과의 교류의 경로 등을 고려할 때 동북 방언의 모습이

서에서 보이는 泥母와 來母의 표음에서 보이는 혼란상은 동북 방언과의 관련성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지역의 방언적 실현 양상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 시기 한어 학습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박재연・김아영 2009, 이재돈 2012 등). 이런 점에서 이런 방언의 음들을 正音으로 인식했을지에 관해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처럼 이 시기 한어 학습서들이 漢語 語音의 실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물임을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華音을 中華正音의 줄임말로 일반화해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하리라 판단된다.

4. 나오며

이 글은 19세기, 20세기 초에 유통된 한어 학습서의 표기와 언어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후기 및 개화기 조선에서의 한어 교육의 모습과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你呢貴姓』(1864), 『華音啓蒙』(1883)・『華音啓蒙諺解』(1883?), 『華語類抄』(1883?), 『兒學編』(1908)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 학습서의 형식과 내용 구성, 어음의 표기와 학습 목표로 설정된 華音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이 시기에 간행된 한어 학습서는 이전 시기의 학습서에 비해서 그 종류가 다양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노걸대류와 박통사류에 기대던 학습에서 벗어나 폭이 넓은 한어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책 한 권에서 한자음과 관련한 것, 한자의 뜻 또는 대응하는 국어 어휘의 제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재의 충실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전 시기의 교재가 지니고 있는 역할의 분담으로 인해 여러 책을 봐야 한다든지, 한 책 안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록된 정보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것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기를 보면 國俗撰字之法에 따라서 당시에 유통되던 華音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화음의 변화에 조응하여 ㅅ계 병서를 이용하여 우리 귀에 된소리처럼 들리는 화음을 나타내려 애를 썼다. 이런 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문헌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석영의 『兒學編』에서는 ㅇ계 병서를 사용하여 齒音을 구별하여 표시하려고 하는 등 한글을 이용하여 표음력을 강화하여 좀 더 원음에 가깝게 화음을 구별하며 익히도록 하였다.

19세기, 20세기 초의 학습서에는 『重刊老乞大諺解』와 비교할 때 牙音과 喉音의 구개음화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華音撮要』에서는 다른 문헌들과는 달리 牙音에서의 구개음화가 더디 반영된 면이 있다. 이를 보면 이 시기 한어 학습자들에게 이런 牙喉音의 구개음화가 가장 주목되는 변화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구개음화는 齒音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舌尖前音과 舌面音이 구별되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兒學編』에서는 설면음과는 달리 대체로 설첨전음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ㅇㅅ', 'ㅇㅈ', 'ㅇㅊ'과 같이 ㅇ계 병서를 새로 도입하여 표기를 시도함으로써 치음의 구개음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氣의 실현에서 전청과 차청의 성질이 한자에 따라서 바뀌었다든지 운모의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하는 양상도 가감 없이 반영하여 당시 현실에 맞는 華音을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華音啓蒙』의 「華音正俗變異」에서 볼 수 있듯이 漢語에서의 正音과는 다른 俗音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제시함으로써 한어 어음의 유통 현실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편성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이 시기에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한어 교육을 시도하여 한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양상을 볼 때 이 시기에는 종래의 관찬 한어 학습서의 편찬과는 성질을 달리하여 다양한 방식의 학습서가 편찬되어 그만큼 당시 조선인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한어 학습 수요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전에는 譯官을 양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어 학습서가 발행되고 유통되었다면, 이 시기에 들어서는 역관이 아니더라도 상공업 등의 목적으로 중국과의 문물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한어를 배울 필요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어 학습서는 『兒學編』에 이르러서는 한어가 일본어, 영어, 조선어와 함께 한자를 매개로 한자리에 놓이는 형태로 변모되게 되는데, 이는 한어가 여러 언어 속의 한 언어로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일무이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언어에서 국제어의 하나로 위상이 달라지는 시대적

변화를 『兒學編』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한어의 학습이 이제는 정치적・외교적인 필요가 줄어들고 다른 부분에서의 필요가 늘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이 시기 한어 학습서는 한어 어음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풍성히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음운 변화로 인한 牙音, 喉音, 齒音의 구개음화, 개별 성모의 격음화, 전청 성모에서 보이는 음성적인 차원에서의 경음으로의 청취, 兒化, 來母와 泥母의 혼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한글의 표음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체계성을 보이면서도 원음에 가깝게 화음의 실상을 표기하려고 한 노력의 결실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런 성격을 지닌 만큼 이 시기에 조선에서 편찬된 한어 학습서는 한어 음운사 연구 자료로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 하겠다.

주제어 : 한어 학습서, 『你呢貴姓』, 『華音啓蒙』, 『華音啓蒙諺解』, 『華語類抄』, 『兒學編』, 구성 방식, 내용 구성, 화음, 합용 병서, 구개음화

투고일(2019. 7. 31), 심사시작일(2019. 8. 2), 심사완료일(2019. 8. 20)

참고문헌

姜信沆(1965),「李朝時代의 譯學政策에 관한 考察: 司譯院・承文院 設置를 中心으로 하여」,『大東文化硏究』2.

_____(1978),「老乞大・朴通事諺解內字音의 音系」,『동방학지』18.

_____(1980),「『華音啓蒙諺解』內 字音의 音系」,『동방학지』22-23.

金南希(2018),「≪中華正音≫에 나타난 譯音表記 및 中國語 音韻特徵 硏究」, 이화여대 석사 논문.

김주필(2019가),「『老乞大新釋諺解』의 漢字語와 漢字 表記」,『구결연구』42.

_____(2019나),「≪朴通事新釋諺解≫에 使用된 漢字語와 그 表記 特徵」,『第11回 國際譯學書學會 國際學術會議 발표집: 동아시아의 譯學政策』, 國際譯學書學會.

김태성(2003),「낙선재본『홍루몽』역음 성모 체계 고찰」,『중어중문학』33.

박재연・김아영(2009),「조선 후기 필사본 한어 교재 ≪中華正音≫에 대하여: 어휘 특징을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42.

박철민(2018),「조선시대 雙行註音體裁 漢學書의 漢音 표기 변천 연구: 老乞大諺解類와『經書正音』을 중심으로」,『奎章閣』53.

朴賢智(2017),「≪華音撮要≫의 注音에 반영된 中國語 音韻 現象 硏究」, 이화여대 석사 논문.

徐美靈(2013가),「≪交隣要素≫의 중국어 발음표기에 사용된 한글자모 연구: ≪華音啓蒙諺解≫・≪你呢貴姓≫・≪兒學編≫・≪漢語獨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中國語文學誌』42.

徐美靈(2013나),「華峰文庫『中華正音』한국어 표기 고찰」,『중국어문학논집』82.

沈小喜(2002),「중국 동북지역의 언어 특수성 연구(Ⅰ)」,『中國語文學誌』11.

_____(2006),「중국 동북지역의 언어 특수성 연구(2): 중국 동북방언의 음운특징을 중심으로」,『中國語文學誌』22.

신용권(2010가),「近代漢語 구개음화 연구(Ⅰ): 반영하는 자료를 중심으로」,『中國文學』64.

_____(2010나),「近代漢語 구개음화 연구(Ⅱ): 변화의 양상과 원인을 중심으로」,『中國言語硏究』33.

_____(2011),「『번역노걸대・박통사』에 나타난 정속음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한글』293.

_____(2012),「≪번역노걸대・박통사≫의 한어음 표기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언어학』62.

_____(2014),「≪華音啓蒙諺解≫의 漢語音 표기 연구」,『중국문학』81.

_____(2015),「조선 후기의 漢語 학습서와 훈민정음의 사용」,『한국실학연구』29.
양오진(2000),「한국에서의 중국어 역관 양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중국언어연구』11.
연규동(2015),「활자본『화어유초』의 서지학적 연구」,『국어사연구』20.
汪維輝(2002),「朝鮮時代漢語教科書與近代漢語研究」,『人文科學』84.
王淸棟(2001),「「華音啓蒙諺解」에 보이는 近代漢語의 특징:『官話指南』과 비교해서」,『中國學論叢』14.
유재원(2005),「『你呢貴姓』중국어음 표기체계에 관한 기초적 연구」,『언어와 언어학』36.
_____(2015),「20세기 전후 한어 회화서에 반영된 중국어 성모 한글 표음상의 특징 연구」,『중국학연구』71.
李敦柱(1989),「「飜譯老乞大・朴通事」의 漢音 調値에 대하여」,『국어학』18.
李在敦(2012),「朝鮮後期≪燕行錄≫所反映的淸代口語研究」,『中國語文學誌』39.
이준환(2019),「『아학편(兒學編)』(1908)의 성모(聲母) 표기와 화음(華音)에 대하여」,『언어와 정보 사회』37.
이윤자(2012),「『老乞大』異本에 따른 表記와 內容의 變化 比較」,『어문논집』52.
이은지(2008),「≪華語類抄≫의 중국어 음운 체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 논문.
정 광(1974),「飜譯老乞大 朴通事의 中國語音 表記 硏究: 四聲通解 歌韻內 諸字의 中聲表記를 中心으로」,『국어국문학』64.
채진원(2006),「≪你呢貴姓≫의 중국어 음운 체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 논문.
崔裕梨(2006),「≪兒學編≫ 中國語 音韻體系 硏究」, 한국외국어대 석사 논문.
한성우(2010),『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언어 지식: 지석영 편찬『兒學編』의 언어 자료』, 인하대 출판부.
황 량(2018),『『譯語類解』의 정・속음 대응 양상 연구』, 공주대 박사 논문.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 語言學教研室 編(1989),『漢語方音字彙』,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李得春(2002),『朝鮮對音文獻標音手冊』, 牡丹江: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徐世榮(1999),『普通話語音常識』, 北京: 語文出版社.
葉寶奎(2001),『明淸官話音系』,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李如龍(2001),『漢語方音的比較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蔡瑛純(1986),『從朝鮮對譯資料考近代漢語音韻之變遷』, 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論文.

〈Abstract〉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Chinese Language Learning Books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nd the Chinese phonemes

Yi, Junhwan *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look at the appearance and cont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oseon Dynasty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enlightenment period based on the writing and language patterns of the Chinese language learning books that were circulated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 text selected for consideration in this article are *Ninigwiseong*(1864), *Hwaeumgyeomong*(1883), *Hwaeumgyeomongeonhae*(1883?), *Hwaeoyucho*(1883?) and *Ahakphyeon*(1908). I looked at the format, content composition, writing, and chord set for learning objectives in these books. The Chinese language study book published at this time features a variety of its types compared to those of previous periods. Therefore, wide-ranging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learning have taken place, away from the previous learning that relied on the *Nogeoldae* and *Bakthongsa*. In terms of writing, the Chinese notes that were distributed at that time were written according to Guksokchanjajibeop. Then, consonant characters laterally attached which starting at ㅅ(s) are used in order to indicate the sound of the Chinese that sounded like those of our ears. There are differences in degree, but these patterns are common in all literature. In addition, the phonetic power of sound was enhanced by using consonant characters laterally attached which starting at o in Ahakphyeon, which is used to distinguish alveolar and palatal. Through this process, the chords were heard, distinguished, and mastered more closely to the original sound. And in this period of study, the multiplication of research notes and the multiplication of the latter is fully reflected. This shows that such research improvements and postscripts were the most notable changes for Chinese learners during this period.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alatalization also occurred in dental consonants, which were to be reflected in the *Ahakphyoen.*

Key Words : Chinese language learning book, *Ninigwiseong*, *Hwaeumgyeomong*, *Hwaeumgyeomongeonhae*, *Hwaeoyucho*, *Ahakphyeon*, format, content composition, the Chinese phonemes, consonant characters laterally attached, palatalization